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 학문분야별 회고와 성찰

오명석, 김형준, 최호림, 조홍국, 최병욱, 김영애, 박사명
정연식, 박은홍, 배공찬, 박번순, 전제성*

I. 소개

이 글은 2007년 10월 27일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GL룸을 빌려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 회고와 성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동남아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의 기획패널에서 발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1명의 학자가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네 시간 동안 우리나라 동남아연구의 역사와 성과에 대하여 토론하는 학회사상 전례가 없었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상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하였기에 이를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동남아시아연구』의 창간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동남아연구의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그 후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명석 학회장을 위시한 새로운 이사진이 생각해낸 최고의 기념식은 우리 자신의 학문적 역정에 대한 회고와 성찰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기념적인 문헌으로 남길 것을 발표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전개된 발표와 토론을 재현하는 글을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도 『동남아시아연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현의 공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밝혀둡니다. 학술대회 당시 발표자들은 15분 정도 발표할 요지를 글로 제출하도록 주문받았습니다. 그리고 발표실황은 녹화되고 녹음되고 녹취되었습니다. 녹화 및 녹음은 전북대 대학원의 인류학과 정정훈군이, 녹취는 정치학과의 홍고은양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발표문과 녹취문과 녹음원본을 자료로 하여 편집되고 재현된 것입니다. 기획에 잘 따른 발표문은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으며, 과하게 길거나 짧은 발표문은 전재하지 않고 녹취된 글을 참조하여 발표자가 다시 쓰는 방식으로 재현하였습니다. 연구상임이사인 전제성이 각 장의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고, 소개의 글을 작성하고, 전체 편집을 주관하였습니다. 최종본을 모든 발표자들이 회람하고 승인하였고, 오명석 학회장과 박승우 학회지 편집위원장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고의 공정을 거쳐 재현된 육성이 한국의 동남아연구는 물론이고 지역연구 전반의 발전을 위한 회고와 성찰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발표자 선생님들께 동지적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II. 한국 인류학계의 동남아연구

1. 개관

오명석(서울대):

제가 먼저 1990년대 이후에 한국 인류학자의 동남아 연구에 대하여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동남아를 연구하는 한국 인류학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연구결과는 주제와 관점에서 대체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남아에 대한 한국 인류학자의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동남아연구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 인류학계는 한국을 연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도 해외연구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인류학자들은 한국문화를 연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이 아닌 타문화를 연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연구하는 것도 그러한 한국 인류학계의 전반적인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박사학위를 가진 한국의 인류학자가 백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타문화연구로 학위를 받은 분은 59명입니다. 전체의 약 6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류학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 인류학계의 독특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인류학에서 타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의 인류학자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세계 국가에서 인류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문화를 연구합니다. 타문화연구가 많지 않지요. 이 점에서 한국의 인류학계에 타문화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특이한 점입니다. 90년대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만 본다면 타문화 연구로 박사학위 받은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타문화 연구로 박사학위 받는 것이 한국의 인류학계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연구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동남아는 11명이고, 중국이 10명, 미국이 9명이었습니다. 미국연구자 중에 절반 정도는 교포사회를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밖에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의 지역을 연구한 분들이 소수 계십니다. 동남아 연구자들이 전체 타문화 연구자들의 20% 정도로 일본 연구 다음으로 많은 편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연구가 점점 많아져서 곧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연구자 11명의 박사학위 수여시기를 보면 2000년대 초반이 여섯 분이나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배출된 것이고 현재 박사학위논문 준비 중인 사람이 서너 명 있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1분의 연구자가 박사학위를 어디서 받았는가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네 사람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박사가 두 사람, 호주가 두 사람, 영국이 한 사람,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미국 박사가 두 사람 뿐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남아가 아닌 다른 지역을 연구하는 한국의 인류학자들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 경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학의 추세를 볼 때 동남아연구의 경우도 앞으로 미국박사가 더 많이 늘어 날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구대상 지역은, 박사 논문만 봤을 때, 인도네시아(강윤희, 김예겸, 김형준, 조윤미)가 네 분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채수홍, 최호림), 말레이시아(오명석, 홍석준), 태국(김이선, 이상국), 필리핀(김민정)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연구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국가별로 연구자 층이 매우 얇습니다.

열한 분의 연구자는 동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열한 분 중 대부분이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학부를 다녔거나 대학원을 다녀서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8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온 '386세대'로서 당시의 시대정신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슷한 생각을 갖는 면이 많고 '동종교배'로 인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서로 너무 심하게 상대편을 비판하고 논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 하여 기피하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삼은 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열한 분의 선생님들이 직접 올리신 연구업적현황입니다. 논문 수가 전부 99편이나 되었습니다. 전문학술지나 단행본에 발표된 논문들만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관한 논문 편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65편으로 전체의 65%나 차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레이시아 연구자인 홍석준 선생님과 인도네시아 연구자인 김형준 선생님께서 논문을 많이 발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분이 한 40편 쓰셨습니다.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자기가 박사학위논문을 썼던 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자기가 전공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굉장히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동남아 전체를 다룬 논문은 5개밖에 없었습니다. 동남아 전체를 다루는 논문은 대개 전반적인 소개의 성격을 띤 논문일 텐데 이러한 작업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 관계에 관한 논문도 다섯 편 정도로 매우 그 수가 적습니다. 대체로 자기가 전공한 지역에 대한 후속연구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문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종교와 의례를 다룬 논문이 28편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에 관한 논문이 많았습니다. 반면, 동남아의 중요한 종교인 불교를 다룬 논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 또는 종족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인류학자들이 문화의 정치적 측면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운동이나 지방정치에 관한 논문이 11편이 되고, 이슬람에 관한 논문들도 대체로 정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민족이나 종족에 관한 연구들도 그렇습니다. 동남아학회 활동을 많은 정치학자들과 함께 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인류학의 전통적 연구주제인 친족, 가족, 결혼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필리핀 친족에 대해서 김민정 선생님이 연구하신 것 말고는 매우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되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과 관련된 국제결혼이라든가 이주노동자, 대중문화교류에 대한 논문들이 최근 몇 편씩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편입니다. 현재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동남아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연구논문의 게재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도 재미있었습니다. 논문을 어디에 발표하고 있는가는 논문을 읽을 독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류학계의 학술지, 즉 『한국문화 인류학』이나 『비교문화연구』에 발표하는 비율이 25%로 제일 높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류학자를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회지인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 밖에 『국제·지역연구』나 『동아연구』 같은 지역학 학술지에 실고 있습니다. 인류학 관련 학술지나 지역학 관련 학술지가 발표논문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용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방법과 관련해서 인류학적 연구가 대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열 한 편의 박사학위논문을 보면 모두 장기간 현지조사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을 보면 그 중 아홉 편이 농촌지역을 연구했고, 한 편이 도시(최호림), 한 편이 공장(채수홍)을 조사했습니다. 대체로 지역공동체를 연구하는 인류학의 전통적인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따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박사논문 이후의 연구에서는 그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체, 조직, 도시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많고 대개 단기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위 후에 장기간 현지 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서 단기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불가피하다면 앞으로 단기간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인류학적인 현지조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관점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상당히 관점이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학의 전통적인 문화 개념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학의 전통적인 문화 개념이라면 문화는 특정 민족이 공유하는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관념의 체계이며, 잘 변화하지 않는 강인한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문화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분열되고 경합하고 있으며, 그리고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따라서 변화의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80년대 이후의 인류학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합니다. 그 흐름과 현재 동남아 연구를 하고 있는 인류학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동남아문화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같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결론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문화가 서로 이질적이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문화는 변화한다든가, 문화를 상황적 맥락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진부한 것이 되지 않았나, 그것만 가지고 새로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 연구결과를 계속 축적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무언가 본격적인 이론적인 논의의 어젠다를 이제는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인류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하는 것에 상당히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잘 인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논의를 논박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내부적인 학문적 논의와 대화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동남아 연구의 전체적 경향에서 비교문화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지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든가 동남아 내의 다양한 문화를 비교하는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지역에 대한 연구만 하지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저로서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론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조사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한 논문을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비교연구를 시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론적인 거대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대화, 세계화, 자본주의화와 같은 거대담론은 다양한 사회의 비교를 통해 보편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류학자는 이런 거대담론의 적절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이라는 문화현상이 개별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가 거대담론의 한계와 부적절성을 비판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 지역마다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마다 독특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일반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문화현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비교문화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남아 문화의 특성이 문화적 다양성이며, 그 다양성은 비교문화적 연구를 하기에 아주 좋은 풍요한 토양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연구하는 지역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멜라네시아나 폴리네시아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 선물교환이라던가 주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대단히 발전했는데, 이는 이들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서로의 연구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선물교환이나 주술이 갖고 있는 일반적 원리나 변이성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볼 때 우리도 동남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활발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의미 있는 문화이론을 구성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종교와 종족 연구

김형준(강원대):

오명석 선생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야기드릴 부분도 오선생님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첩됩니다. 저는 한국 인류학자들의 동남아 연구 중 종교와 종족 연구를 중심으로 그 방향성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동남아를 조사한 10명의 인류학자 중 종족과 종교와 관련하여 글을 쓴 학자는 8명입니다. 그 중 종교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세분이었는데, 홍석준 선생님과

저와 최호림 선생님입니다. 이들은 학위논문 이후의 연구 과정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였고, 이들에 의해 종교 연구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인류학자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을 어떤 주제로 작성했는지가 이후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김민정 선생님과 싱가포르에 계신 강윤희 선생님 등 두 분이 학위 논문의 한 파트로서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분과 이들 두 분 선생님의 종교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의례에 대한 지대한 관심입니다. 전통적으로 인류학자들이 의례에 대해 워낙 많은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한국 인류학자의 관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례 연구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의례가 갖는 맥락성이나 상황성에 대한 관심이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의례 그 자체에 내재된 비역사적이고 고정불변의 의미가 아닌 맥락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시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의례의 다의적, 다차원적 성격을 상이한 장소와 배경 속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적 해석을 강조함으로써 의례와 관련된 기초적 수준의 자료 축적을 경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의례가 상이한 배경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고 실천되는지의 문제는 깊이 연구된 반면, 동남아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행하게 되는 통과 의례가 무엇이며, 그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자료 축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해 인류학자의 연구는 동남아시아 의례나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입문자나 학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미흡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연구 결과의 소비를 극히 제한된 집단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 자신도 때로 경험하곤 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제가 쓴 글을 학생들에게 읽도록 요구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곤 하는데, 이는 제가 쓴 글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갖는 일반적 수준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종교 연구와 달리 종족 관련 연구에서는 일반적 수준의 논의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한국 인류학자 중 종족문제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하셨던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종족 관련 연구에서 이용되는 자료의 상당수는 역사적 자료와 문헌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례 연구 자료를 사용하는 오명석, 조윤미 선생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수집된 인터뷰 자료가 분석의 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류학자의 딜레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만족하는 자료를 이용해서 논문을 구성하게 되면 그 독자층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반면, 넓은 독자층을 상징하고 글을 쓸 경우, 인류학자 자신이 만족할 수 없는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인류학자들의 동남아시아 종교 및 종족 문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찾을 수 있었던 흐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연구자의 이후 연구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연구자가 많았다는 이유로 인해 종교 관련 연구 결과가 일정 정도 축적되어 있는 양상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종교관련 연구가 전문화된 수준에서 진행되었다면, 동남아 전체 혹은 각 국가의 종교적 상황을 개괄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학계에서의 해외 지역연구 발전 과정과도 관련되어 있는 듯합니다. 동남아가 인류학적 연구 대상으로 처음 설정된 시기, 즉 1980년대 후반 국내의 해외지역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었고, 문헌연구 혹은 기초적 수준의

조사에 기초하여 동남아의 종교 문제를 검토하려 했던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던 1990년대 중후반, 지역연구와 관련된 학계의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고, 학문적 활동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해, 연구자들은 전문적 수준에서 종교를 다룬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으며, 그에 반비례하여 개괄적 수준에서 동남아의 종교적 상황을 소개하는 연구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적 연구 결과의 축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비전문가 혹은 학부 학생과 같이 동남아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에 관심을 갖는 집단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도하게 전문화된 연구가 동남아 종교와 관련된 관심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종족 관련 연구는 종교연구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종교연구와 달리 종족 문제를 개괄적이고 역사적으로 조망하려는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종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추가될 때, 보다 균형적인 연구결과가 공존하는 바람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글로벌리제이션

최호림(한국동남아연구소):

저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인류학자가 동남아를 연구한 성과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또는 전지구화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적인 확산이나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 상품, 자본과 노동의 초국경적 이동과 교류가 빈번해지고 사람들의 초국가적, 다문화적 경험이 일상화되어 가는 것과 관련된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류학적 연구 주제들로는 관광, 이주노동, 해외투자, 국제결혼, 문화교류, 디아스포라, 다문화사회, 문화의 혼성성 등이 있고, 전지구화 과정에 대한 대응 또는 저항으로서 민족(종족)정체성의 강화, 전통의 재발명,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등의 주제도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글로벌리제이션과 관련된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주로 동남아 현지에서 관찰한 글로벌리제이션과 관련된 인류학적 연구 결과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으나 의외로 그러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종교배’를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신랄하게 비판해 보고자 했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주로 각 연구들의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오명석, 김형준 두 분 선생님들처럼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범주화 할 수 있는 논의들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야 마땅한데, 제 발표문은 주로 나무에 집중하고 숲을 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문에서 소개한 연구들이 대표적인 연구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숲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논문들의 개별적 의의에 관해서는 이번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저의 발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주제와 관련된 동남아전공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개관해보겠습니다. 2007년 9월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의 동남아 전공 인류학자 11명 중 동남아사회 혹은 동남아인들이 관련된 글로벌리제이션 현상에 관한 연구결과를 생산한 분은 모두 일곱 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령, 국제결혼(김민정, 김이선), 이주노동과 해외투자(채수홍), 관광(김이선, 오명석, 홍석준), 전통의 지속과 변화 혹은 재토착화(김예겸, 김이선, 최호림, 홍석준), 그리고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문화적 반응(오명석, 홍석준), 다문화사회(홍석준, 김민정) 등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연구에도 “글로벌리제이션”을 표제어로 삼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동남아의 글로벌리제이션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에 특화된 업적을 남긴 전문 연구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동남아 현지에서의 관찰에 초점을 둔 연구는 10여 편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명석 교수의 말레이시아의 화인사회에 관한 연구(1999), 말레이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이슬람적 대응에 관한 연구(2001), 채수홍 교수의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2007), 호치민의 다국적 공장에 관한 연구(2003), 한인사회에 관한 연구(2005), 그리고 홍석준 교수의 말레이시아 관광 이벤트에 관한 연구(1998), 말레이시아 경제위기에 관한 연구(1999), 멀라카의 외래문화 수용과 다문화사회에 관한 연구(2004; 2006) 등이 있습니다. 슬라웨시 문화의 재토착화를 다룬 김예겸 박사의 연구(2006)나 베트남의 탈사회주의 체제 변화과정에서 전통의 지속과 변화를 다룬 저의 졸고(2005; 2007)는 일부 내용 중 글로벌 현상에 대한 민족주의 또는 지역주의적 반응 혹은 문화적 혼성의 문제를 언급하였지만 글로벌리제이션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이선 박사의 학위논문(2004)과 후속 연구논문(2004)의 경우에도 관광을 다루었지만, 주로 전통 공예의 상품화와 의미체계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한국사회 내의 동남아사람이나 동남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인류학자의 연구에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출신 이주자와 동남아 관광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의 동남아 관광 속에 나타나는 동남아의 이미지에 관한 오명석 교수의 연구(2006)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동남아 내부의 맥락과 경로에 대한 분석보다는 한국인이 구성하고 있는 동남아(관광)의 이미지에 초점이 있으므로 많은 부분 한국인의 태도와 관념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먼저, 김민정 교수의 단독 연구로서 한국여성과 결혼한 필리핀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2003)가 있고요, ‘이주의 여성화’에 초점을 두고 베트남과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을 다룬 연구(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 2006),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추진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등의 공동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노동이나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동남아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화적 갈등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증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6년부터 “다문화사회” 담론이 넘쳐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동남아전공자의 연구 참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이선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주도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책과제 연구의 경우, 저도 베트남-한국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면접에 참여하였는데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출신 이주여성의 국제결혼 가족 사례에 대한 심층면접을 위해 현지어와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연구가 동남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연구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발표문에서 다룬 것 중 “한류”는 한국의 연구자가 동남아에서 최근 관찰할 수 있는 글로벌리제이션에 관한 연구 주제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지하듯이 2001년 이후 “한류”는 하나의 유행이 되어 정치학, 경제학, 미디어, 문화연구, 문화비평,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 중에 동남아 전공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혹은 어문학자의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수용국 현지의 한류현상에 대한 해당 지역 전공 인류학자의 대표적인 연구로 중국 한류에 관한 연구(장수현 2004)가 있습니다. 여타 지역과 인류학 이외 분야에서의 ‘한류’ 관련 연구는 별도의 목록을 첨부해야 할 정도로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남아 전공 인류학자에 의한 동남아 ‘한류’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또한 “한류”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제이션 현상과 관련한 인류학적 연구의 현황에 대한 평가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정치학자인 신윤환 교수의 “동아시아 한류현상: 비교분석과 평가”(2002)라는 글이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특히 중국, 타이완, 베트남, 싱가포르, 몽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 즉 한류를 보는 한국 학계의 다양한 시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소개한 부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한류를 보는 시각은 찬양일변도의 긍정에서부터 경멸이 가득한 부정까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데, 이 중에서도 “싼 값”, “배출구”, “천박한 B급”, “세속”, “욕망” 등 감각적 표제어를 동원하는 등 한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은 문화인류학과 문화비평가들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인류학자들이 주로 “한류” 담론에 대한 경멸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러한 지적은 역설적으로 한류의 주요 수용지역인 동남아 각국에서의 외국 대중문화 및 문화상품 소비에 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동남아 한류에 관하여 인류학자의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인류학자에 의한 한류 연구가 이미 다수 발표되었지만(가령, 김현미 2002; 조한혜정 2002 등), 이러한 연구는 ‘한류’ 현상에 대한 한국 또는 수용국가의 반응이나 ‘한류와 관련된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로서 ‘메타 한류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직도 “한류”로 따옴표를 붙여서 개념화하여, 한류를 문제들이 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이미지나 위상의 제고, 경제적 효과 등에만 주목하여 한류를 찬양하는 국가이익 지상주의, 아시아에는 우리와 문화적 친화력이 있다는 식의 막연한 문화동질론이 문화인류학자의 시각과 충돌하는 면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 개념은 인류학자가 전통적으로 다루는 ‘문화’ 개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면이 분명 있습니다.

동남아에 관한 인류학에만 국한해 보아도, 최근 한류 현상이 두드러지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등에 관하여 전공자의 관심이 인류학의 ‘전통적’인 영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문화적 정체성, 사회경제적 변화 및 문화변동 과정의 적응과 갈등, 전지구화 과정에서도 강화되거나

변용되고 있는 전통문화의 성격 등에 주로 초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현지사정에 익숙한 인류학자의 눈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유입은 동남아 각국이 이미 경험하고 있던 다양한 외래문화의 유입과정 중에 하나의 현상 정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한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남아 문화의 특성과 동남아 각국의 외래문화 수용과정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한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석하는 연구는 여전히 인류학자의 질적 연구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틈새로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에 관한 문화인류학자의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우수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어 왔으나, 글로벌리제이션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 국제결혼, 관광 등에 관한 연구 중에 ‘글로벌리제이션’을 핵심어로 삼는 일부의 연구가 검토되었지만, 이것 또한 본격적인 동남아 연구라기보다는 한국사회 연구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친정’이 되는 동남아 현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부재합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가 동남아연구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집은 여성의 ‘시댁’인 한국에서의 경험과 문제뿐만 아니라, ‘친정’인 동남아의 문화적 배경과 시집보낸 친정식구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대 또한 분석되어야 합니다. 인류학적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 동남아 사람들에 의해 실천되고 있는 전지구화의 문화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사회가 글로벌리제이션 과정을 겪으면서 관심의 초점이 된 문제들이 동남아사회에서도 유사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속도를 더하고 있는 전지구화의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상상되고 경험되고 소비되는 외국인, 외래문화가 동남아인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한 접촉이 동남아의 전통적인 세계관, 정체성, 삶의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아가 늘어난 이문화의 경험이 과연 사람 간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하며, ‘문화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등의 문제들이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남아 ‘한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학적 연구가 시급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1990년대 이후 동남아 각국의 주요 도시마다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왔으며, 그 규모도 점차로 커지고 있고, 더구나 일시적 체류자 보다 장기 거주자가 많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동남아 각국의 한인사회 및 한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와 관련된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 즉 ‘한국 속 동남아’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도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뿐만 아니라, 유학이나 연수, 파견근무, ‘기러기 가족’, 해외 봉사활동, 시민운동, 선교 등 다양한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글로벌리제이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문화인류학이 다른 학문분야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이미 전통적인 연구 영역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문화접변과정에서 동남아 사회가 외래문화의 침투와 혼성에 대한 대응, 신자유주의나 전지구화에 대한 저항과 토착문화의 보존 혹은 로컬리제이션, 민족(종족)정체성의 재강조, 전통문화의 현대적 변용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토론

전제성(전복대):

오명석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놀랍습니다. 한국의 인류학계에서는 동남아 연구자가 중국 연구자보다 11 대 10으로 한 명 더 많다니까요. 정치학이나 역사학에서의 비율에 비하면 엄청난 성공으로 보이거든요. 동남아연구가 중국연구를 능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네요. 작은 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인류학의 정신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학계에 라오스나 브루나이 같은 동남아의 작은 나라들에 관한 전문가가 없고, 적어도 정치학계에서는 전문가가 나올 가망이 없는데, 그렇다면 인류학계에서 동남아의 작은 나라들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오명석:

인류학에서 중국 연구자보다 동남아 연구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류학자들은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데 중국이 현지조사를 허용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류학적인 현지조사가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중국연구자가 수적으로 적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현지조사도 가능해져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연구가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인류학계에서 한국에서 좀 관심이 덜하다고 하는 지역들을 전공해도 그것을 필요한 연구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인류학계 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중요한 조건이지요. 그래서 아마 소위 ‘잘나가는 지역’ 말고 ‘소수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보는 인류학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학자들이 남이 하지 않은 지역들을 선택해서 연구하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지요. 인도네시아를 전공하더라도 내부에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안했던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연구들도 앞으로 계속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인하대):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의 비중이 제일 높은 학문분야가 인류학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동남아가 0.1%나 될까 말까 하는데 아까 인류학 분야는 연구자가 굉장히 많고 아까 설명을 들으니 90년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인류학분야 동남아시아 연구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학계에서는 과연 연구의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논문을 써야 하는가,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소비자를 말씀을 하실 때 한국학계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령 그런 식의 연구가 국제적인 학계의 맥락에서 볼 때도 역시 그런가?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류학의 동남아 연구자들은 국제학계 쪽에서의 활동이라든지, 거기서 위상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복안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국의 동남아시아 인류학이 아니라 국제적 위상 속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김형준:

저는 소비자의 문제를 고민할 때, 국제학계나 국내학계보다 국내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에 관광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손에 들고 갈 만한 우리 책이 있는지, 동남아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때 그런 관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책이 있는지, 저는 이것을 일상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인류학자들이 전혀 생각을 안했다는 그런 문제인식을 말씀 드린 것이었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동남아학계에서 한국 인류학자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모색하는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무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홍국(부산대):

저는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동남아시아 연구가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고 분과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지역연구차원에서의 연구인데 이번 학술대회에는 분과 학문적인 틀 안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 분의 발표는 인류학자들의 연구만 다루었고,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 결과가 검토되지 못한 문제가 있네요. 이런 주제와 분류에 의한 학술대회보다는 정말 학제적인 차원에서 지역연구다운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화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젠더(gender)라든지 이런 정말 지역연구다운 주제를 가지고 학문분과를 초월해서 해부와 성찰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명석:

사실 두 가지 다 가능한 방법이고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역연구와 학제적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각자의 학문적인 방법과 전통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는 학문분야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인류학자 내부의 이야기만 하게 된 문제가 있네요. 조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남아 연구를 하는 인류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들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각기 얘기하고 있는지에 관한 토론의 장을 또 만들어서 지역 학회로서의 생산적인 어젠다(agenda) 형성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저희가 인류학계 이야기만 했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끼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희마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인류학자들 내부에서도 누가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 제 느낌이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의 무지의 폭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라도 내부적으로 서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III. 한국 역사학계 및 어문학계의 동남아연구

1. 역사학 분야

조흥국(부산대):

1980년대까지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는 거의 베트남과 태국에 집중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동남아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는 20세기 전반에 주로 일본에서 활동했던 김영건(金永健)이란 자로, 그는 일본과 인도차이나 지역간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베트남 역사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들은 주로 1960년대 베트남전쟁의 배경에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중 많은 연구들은 중국사를 전공한 자들의 글이었는데, 이들은 베트남 문화를 중국 문화라는 거울을 통해 이해하려 한 것으로, 중국사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역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70년대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출신 학자들의 연구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동남아 역사 관련 연구는 중국의 일차사료를 근거로 한 베트남 역사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차사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해당 사료에 대한 언어독해 능력이 없고 사료가 국내에서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개 영어나 일본어로 된 이차문헌에 의지하여 글을 썼습니다. 역사기술상의 관점에도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용하는 이차문헌의 관점에 따라 때로는 식민사관적인 색채를 띠고, 때로는 스스로 반(半)토착인이 되어 민족주의적인 논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 동남아 역사 연구자들이 베트남 역사 연구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역사학 연구의 기본인 일차사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물론, 일차사료 사용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이들은 역사 연구의 기본적인 실증주의적 문제의식은 물론, 역사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 역사 연구는 1990년대 들어서서 지역적으로 다변화되고, 연구도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주로 베트남과 태국에 국한되었던 연구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태국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1992년경부터 나타났으며, 베트남 역사에 대한 연구도 연구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주제가 더욱 다양하게 되었고 연구의 수준도 제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역사 연구는 여전히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태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등의 역사 연구는 아직도 매우 부진하거나 아예 행해지지 않습니다. 또 동남아 전체 혹은 대륙동남아나 도서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사학적 연구들이 매우 적습니다. 국가별 역사 연구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 학자에 의한 연구의 출현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남아 역사 연구에서 지적할 또 다른 문제는 베트남과 태국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 외에는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근·현대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현대사 연구가 대개는 사료의 제한성과 언어의 문제에 별 구속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사의 흐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전근대사에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일차사료의 사용, 역사이해의 관점 문제 등 동남아 역사 연구의 일반적인 문제들도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한국의 동남아 역사 연구도 여전히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몇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태국과 말레이시아 역사 연구는 극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사 연구는 역사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져 연구가 다량 생산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베트남 역사 연구를 보면, 그것이 정치사와 사회·경제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베트남 농촌과 토지 제도에 관한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 지성사에 관한 연구가 행해진 것도 2000년 이후의 새로운 발전입니다.

동남아 역사 연구를 전체적으로 보아도 정치사와 사회·경제사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사회사 중에서는 특히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제법 나왔는데, 그것은 이미 1970년대 유인선의 베트남 사회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 문제의식이 나타났지만, 동남아 전통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의 하나가 여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경제사 연구 중 화인사(華人事) 연구가 1990년대에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대상 국가도 더욱 다양해지고 연구도 많아졌습니다.

교류사 내지는 무역사에 대한 연구도, 비록 베트남과 태국에 국한된 것이지만, 많아졌으며, 미얀마의 칠기공예에 관한 예술사적 연구도 등장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동남아 관련 서술에 대한 비판과 동남아 국가들의 역사교과서들에서 태평양전쟁 시기에 관한 서술의 분석 등 역사교과서에 관한 연구가 행해진 것도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이것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의 영향 내지는 그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이후 동남아 역사 연구는 그동안 연구물이 쌓이고 과거에 비해 연구자가 더 늘어, 연구 대상의 국가와 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의 수준이 향상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무엇보다도 2000년 이후 많은 역사 관련 단행본의 간행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양 단행본의 한글 번역본 출간도 그동안 동남아 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아직 없습니다. 또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역사 연구도 한 두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형편이죠. 필자는 그래서 이들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동남아 역사에서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 연구자와 연구물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18세기 이전의 역사와 20세기 중엽 이후의 현대사도 심도 깊은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제도 베트남의 지성사 연구가 나와 고무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역사 연구에서도 사상사와 지성사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술사 내지는 문화사 연구도 개척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사회사 연구는 여성 연구가 약간 있는 편이지만, 앞으로 노예와 평민 그리고 귀족과 왕족 등 사회계층에 관한 역사적 연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병욱(인하대):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는 대학 내 학문 분야로서의 공식적 자격을 획득함을 의미하는 강의 개설을 기준으로 볼 때 1979년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동남아시아사 강좌가 처음 개설된 해를 시발점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 동남아시아학 강좌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다음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동남아시아사가 전후 학기에 학부에 두 과목, 대학원에 한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고려대와 서울대가 동일했습니다. 공히 '동남아시아사'라는 제목하에 한 학기는 베트남사, 다른 학기는 동남아시아사가 강의되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는 베트남사 또는 동남아시아사가 개설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태국사를 전공하는 송인서 덕분에 강원대학교에도 동남아시아사가 생겨났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태국사를 전공하는 조흥국과 말레이시아사 전공자 소병국이 각각 독일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서강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동남아시아사 강좌가 생겨났으며,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즈음 동남아시아사가 1년에 한 강좌씩 개설되었습니다. 1990년대 전반까지만 본다면, 강원대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동남아시아사는 서울 소재의 몇몇 상위권 대학에만 한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김종욱, 송정남 등이 베트남에서 돌아오면서 부산의 영산대학교 홍성의 청운대학에서 베트남사가 개설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조흥국과 최병욱이 각각 한국의 대표적 두 향도에 위치한 부산대와 인하대에서 동남아시아사를 개설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사 강좌의 지방으로의 확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인천은 물론 청운대학교가 있는 홍성까지도 바다에 인접한 해안지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남아시아사 강좌의 확산 방향은 '서울로부터 지방'이라기보다는 '서울로부터 해안도시' 혹은 '내륙으로부터 해안'이라고 표현함도 그르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자별로 보자면, 인원은 늘어난데 비해 구체적 전공지역의 확대 속도는 매우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1세대라 할 수 있는 유인선과 송인서의 지역 전공 국은 베트남과 태국이었습니다. 두 학자만이 동남아시아사 강좌를 지키고 있던 80년대를 지나 90년대로 들어서면 조흥국, 소병국이 새로이 강좌를 만들어 나갔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에 걸쳐 송정남, 김종욱, 최병욱, 노영순이 각각 유학지에서 돌아와 강단에 섰으나 조흥국과 소병국의 전공이 태국과 말레이시아인 외에 나머지 네 학자의 전공은 모두 베트남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윤대영이 프랑스에서 돌아와 1세대 유인선 교수가 퇴임하면서 자리를 비운 서울대 및 연세대에서 강의 중인데 그의 전공 역시 베트남입니다. 전공 대상국이 70년대말-80년대의 베트남, 태국에서 말레이시아 한 나라만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병국의 전공 범주가 근현대사인 까닭에 말레이 세계의 고전 및 원사료에 기초한 무게 있는 전통시대 연구는 아직 미답 상태입니다. 기존의 태국, 베트남사라고 하는 전공 지역 범위에서 확대된 폭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첫 동남아시아사 강의를 시작한 이래 3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연구자의 전공 범위 지역이 열 나라 중 세 나라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참담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위에서 소개한 학자들이 하나같이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 1세대야 그렇다고 쳐도 그 세대가 활동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되어가는 마당에도 아직 국내 박사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현실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학문 환경의 척박함이라고 답하기에는 주변의 인류학이나 정치학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설명이 아닐 것 같습니다. 청자들의 진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입니다. 역사와 지역을 아우르는 학문 분야에 종사한다면 자신의 전공과 지역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저술을 선보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역사서는 다양한 분야 학문의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관계로 학계에서 가장

기다리는 생산물입니다. 일찍이 유인선의 『베트남사』 (민음사, 1982)가 있었고, 이 책은 20년 뒤인 2002년에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제목으로 다시 세상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 책은 동남아시아사 분야에서는 최초의 저작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이 읽혀진 책으로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남의 『베트남의 역사』 (부산외대출판부, 2001)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출판된 베트남사 또는 동남아시아사 서적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대로 모양을 갖춘 태국 통사도 없고, 말레이시아 통사도 없습니다. 역시 통사에서 베트남이 강세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유인선이나 송정남이 비슷한 나이 때에 두터운 개설서를 낸 사실은 다른 학자들에게도 일정 수준 강박관념으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인선이나 송정남이 이렇다 할 번역서를 내지 않은데 비해서 조흥국, 소병국, 노영순은 밀턴 오스본의 고전적 동남아시아사 개설서를 『한권으로 읽는 동남아시아사』 (오름, 2001)로, 압둘 와히드의 책을 『말레이시아사』 (오름, 1998) 클라이브 크리스티의 동남아시아 근현대사를 『20세기 동남아시아 역사』 (심산, 2004)로 충실하게 번역 출간했으니 큰 공헌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저도 『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6)를 출간하였는데, 한국 최초의 동남아시아사라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 보완, 수정할 곳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사의 개척자인 유인선이 모범을 보인 바인 연구 활동 및 성과 발표의 영역의 다양화는 참고할 만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보아 동남아시아사 전공자들이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연구 대상국 학계에서의 위상 확보입니다. 둘째는 세계 공용어인 영어권 시장에서의 학술 활동 및 연구 성과 발표이며 마지막으로 말할 나위도 없이 한국 내에서의 활동일 것입니다. 유인선의 예를 들자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논문 및 저술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층의 학자군을 갖고 있지만 그나마 한국의 동남아시아사학계가 국제학계에서 도외시당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세 언어 발표 (triple language publications)’는 짐이재 재미입니다. 조흥국, 소병국은 영어를 사용한 학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송정남, 김종욱은 베트남어로의 논문 발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학자로서 타국 연구의 결과물을 영어권에서 출판한 학자는 말레이시아 정치를 연구한 황인원이 최초일 터인데 (ISEAS, 2003), 그 뒤를 잇는 출판물로 이듬해에 중앙아시아사 연구자인 김호동의 저서와 (*Holy War*, Stanford University) 베트남사 연구자인 최병욱의 저서 (*Southern Vietnam*, Cornell University)가 있습니다. 학계 전체로 보아서 세 개의 출판물 중 동남아시아 분야가 두 개를 차지하고 있고, 역사학계에서도 동남아시아사 분야가 선두를 차지한 셈인데 (터키사 전공자 이은정의 박사학위 논문이 2003년 네덜란드에서 영어로 출판되었으나 출판사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는 유인선 시기부터 시작한 적극적인 국제화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사 연구자의 교육 배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영국(노영순), 프랑스(윤대영), 독일(조흥국), 미국(유인선, 소병국), 호주(최병욱), 베트남(송정남, 김종욱), 태국(송인서) 등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망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학문적 방법론이 교류되고 혼합되는 가운데 각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는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학자의 연구 범위가 너무 광범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태국 전공자인 조흥국이 버마를 연구한다거나, 베트남 전공자인 최병욱이 중국이나 한국을 건드리고, 캄보디아까지 관심을 확대할 공리를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전공자인 소병국이 저 멀리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이리안자야를 연구하는 현상들입니다. 베트남 전공자인 윤대영은 요즘 라오스도 연구해 볼까 하여 준비 중입니다. 학문 연구의 범주 확대에 의한 거시적 시각 확보라든가, 학제간 연구를 위한 ‘피치 못할 공헌’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이유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사 연구층이 얇은 관계로 무주공산의 영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역사를 담당할 전공자들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존의 역사가들이 자신의 고유 영역에 몰두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려니와 너무 다양한 영역을 건드리고 다니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재난을 (저를 포함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2. 어문학 분야

김영애(한국외국어대):

동남아 어문학연구에 대한 15년을 회고해보라는 갑작스러운 권유를 받고 주저주저하다가 수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았으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고민만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지난날들을 회상하면서 한국동남아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동남아시아연구』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이야기는 한국동남아학회 창립 이전의 기억 몇 조각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15년 전보다 더 전에 저는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이하 마인어과) 양승윤 교수의 권유를 따라 어딘가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적어도 예닐곱 명의 젊은 동남아학자들을 만난 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땐 수줍음을 몹시 탔던 시절이라 젊은 학자들을 다 기억해 낼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동남아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나누고 지역연구를 체계화하고, 연구자 상호간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폭을 넓히고 깊게 하기 위해, 또 후학들을 배출해내는 문제를 두고 함께 고민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초창기에는 정치학자들이 주축이 되었고 1-2년 후에 경제학자들이 합류했으며, 언어학자와 문학학자를 비롯하여 인문학자들이 합류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던 소위 소장파 사회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학자들을 모시고 한국동남아학회를 창립한 것은 1991년 1학기 학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라고 기억됩니다. 외교안보연구원에 모여 창립총회를 하면서 저는 동남아지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배학자들의 수가 적지 않음에 놀랐으며, 학계 외에 기업계와 정계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음에 의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동남아학회와 학술지 『동남아시아연구』는 탄생되었습니다. 매년 한 권씩 『동남아시아연구』를 발간하다가 어느 정도 연구자의 수가 늘어났고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된 1999년부터 매년 2권씩 발간함으로써 지금까지 모두 25권을 발간해냈습니다. 그 15년 간 표지의 디자인과 색깔은 4번 새롭게 변신했더군요. 현재는 3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으로 보면 한국동남아학회의 얼굴이자 유일한 연구발표의 장인 『동남아시아연구』는 종합학술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동남아시아관련 학문을 강의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적지 않으나 어문학연구를 위한 언어까지 강의하는 대학은 몇 곳 안 됩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죠. 동남아시아의 언어는 보통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태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시아어 및 인도네시아어 등등을 가리킵니다. 이 언어 중에서 베트남어를 비롯하여 태국어와 마인어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전공으로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어와 라오스어는 현재 전공어로는 강의되고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그 기초과정이 각 캠퍼스에서 비정규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얀마어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만 강의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베트남어와 마인어는 한국외대와 부산외대 이외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교육이 중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어문학 연구를 하는 교수도 한국외대와 부산외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어문학 연구는 현지어의 구사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영어나 불어 또는 제 삼의 외국어를 통한 연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베트남 문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문학 연구는 한국외대와 부산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국인 전임교수의 전공과목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이러한 관찰을 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어문학교육 및 연구의 현주소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동남아시아의 언어를 교육하고 있는 학과로는 마인어과, 태국어과, 그리고 베트남어과가 있고 내국인 전임교수는 모두 15명입니다. 학과 별로 보면, 마인어과에는 총 6명의 전임교수 중 어학전공이 1명이고 문학전공이 2명입니다. 태국어과도 역시 총 6명 중 어학전공 전임교수가 2명이고 문학전공이 1명입니다. 베트남어과는 총 3명의 전임교수 중에 어학전공 교수는 없고 문학전공 교수가 1명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학 - 정치, 경제, 인문학 - 전공 교수가 8명인데 비해 어학전공 전임교수가 3명이고 문학전공 교수가 4명인 셈으로 어문학 전공교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보통 어학전공 교수나 문학전공 교수 또는 역사나 정치학, 철학 등 인문학 전공교수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강의하는 동안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태국어과의 경우 태국어 전공교수와 태국문학전공 교수를 매년 3명씩 초빙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논문을 1-2편씩 발표합니다만 한국동남아학회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다른 학과도 거의 비슷한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외대 또한 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부산외대의 경우도 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산외대 사이트에 들어가 본 바에 의하면 부산외대에는 태국어과, 마인어과, 베트남어과 그리고 미얀마어과가 있는데 내국인 전임교수의 수는 모두 13명입니다. 태국어과 3명의 전임교수가 모두 지역학 전공입니다. 마인어과의 경우는 3명의 교수 중 어학전공 교수가 1명, 문학전공 교수가 1명, 그리고 정치학 전공교수가 1명입니다. 베트남어과는 모두 4명의 전임교수 중 문학전공 전임교수가 1명 있고 나머지 3명은 정치와 경제 또는 인문학 전공입니다. 미얀마어과는 3명의 전임교수가 각각 문학, 어학,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외대의 경우 어학 전공이 2명, 문학전공이 3명 그리고 지역학 전공이 8명입니다. 결국

한국외대와 부산외대에서 강의하는 내국인 전임교수 28명 중 어문학 전공교수는 12명이고 기타 지역학 전공 교수가 16명인 셈입니다.

한편 한국동남아학회가 15년간 발간한 총 25권의 『동남아시아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일별해보면 140여 편의 논문과 연구노트가 실렸습니다. 그중 어문학 관련 논문은 열 세권에, 전체 논문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약 15편이 실려 있습니다. 15편의 논문을 나누어보면 베트남문학 논문이 2편, 인도네시아어학 논문 1편, 미얀마문학 논문 2편, 그리고 태국문학 논문 5편, 태국어학 논문 5편입니다. 태국 어문학 논문이 10편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15편의 논문을 어학과 문학으로 나누어보면 어학 논문 6편, 문학 논문은 9편입니다. 이 15편의 논문은 한 나라의 언어나 문학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한국에서 동남아의 지역학교육이 1964년경부터 한국외대의 마인어과를 필두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지역에 관한 어문학 연구가 일천하다는 것을, 또는 동남아 관련 연구 중 어문학 연구는 기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연구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적할 사항으로는 한국 고등교육기관에서 동남아 관련 학문을 강의하는 기관의 수가 극히 적다는 사실과 동남아 지역의 어문학을 강의하는 대학교의 수는 더욱더 적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공학과의 해당언어 교육의 당초 목적이 학문을 위한 교육보다는 실용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문학을 강의하는 대학교라 해도 그 학과의 성격이 우리나라의 국문학과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교과과정이 해당 국가의 어문학만을 전공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학의 일환으로 언어와 문학을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문학도의 수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동남아지역 관련 지역학은 물론 어문학 연구자의 수가 근본적으로 희소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인 연구논문의 수도 적다는 사실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연구자가 적다는 것은 논문을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층 또한 거의 전무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게재하고자 제출한 논문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어문학의 현주소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한국학술계에는 많은 어문학계통의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동남아학회는 이러한 동남아 어문학의 미천한 현주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하기 전에 본인은 어문학 연구가 동남아 지역학 발전에 효용성이 없는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찾아 나아가야 할까?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어문학 논문의 게재를 배제하고 한국동남아학회 회원 중 전공자가 가장 많은 사회과학지로 학술지의 성격을 바꿔야 할 것인가?

그러나 한국동남아학회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한국동남아학회에서 어문학연구를 좀 더 활성화하고 정기적으로 논문집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일 년에 2권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한 권 더 발간하는 방안은 어떨까? 기존의 두 권은 어문학을 제외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논문을 게재하고, 새로운 한 권은 어문학 논문으로만 구성하는 방안은 어떨까?

어문학 논문은 개별적 논문도 좋고, 한 주제를 놓고 각 나라의 케이스를 특집으로 싣는다면 어떨까? 다음 해의 주제를 미리 정해 연구할 시간을 주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어학이나 문학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후학들이 점점 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학들이여!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어문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3. 토론

박사명(강원대):

역사학 쪽의 연구경향이 국가별로 검토된 것 같은데, 역사연구를 시대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주제별로도 나뉘볼 수 있을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조흥국:

제가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교류사 등으로 분류를 시도했다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사 쪽은 주로 정치사나 사회경제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나라 연구는 거의 피상적으로 다루어졌는지 전혀 없든지 뭐 그렇습니다.

배궁찬(외교안보연구원):

인도네시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관심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역사학의 대상으로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인도네시아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제성:

앞으로 계속 암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년 내로 두 명의 인도네시아 역사 전공자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외대 마인어과 출신인 송승원양이 오하이오대(Ohio University)에서 인도네시아 현대사로 박사학위논문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고,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국제대학원을 졸업한 여운경군이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로 유학을 가서 역시 인도네시아 현대사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현재 수마트라에서 현지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흥국:

인도네시아사 연구자가 아직 없었던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보니깐 인도네시아 전공자가 없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역사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겠지요.

박사명: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과 관련성이 많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많았을 것이고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최병욱:

인도네시아 전공 역사학자가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물론 베트남입니다.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유인선 선생님이 고려대에서 동남아시아 강의를 개설하고 제자들을 키우시기 시작을 하실 때 베트남사 연구하겠다는 학생들이 숫자도 제일 많았고 다음이 인도네시아사 연구희망자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는 재미있고 관심도 많았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인도네시아 역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유인선 선생님이 고대에서 서울대로 옮겨가시면서 당시에 고려대학교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동남아시아사 연구 학생 그룹이 깨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서울대로 옮겨서 제자를 다시 키우신 결과, 아까 전선생님이 언급한 여운경이 인도네시아를 연구하게 되었고, 윤대영이 베트남을 연구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고려대에서 제 강의를 듣고 서울대로 옮겨 석사를 마친 뒤에 지금 UCLA로 유학 가있는 허지예군이 태국사를 전공하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역시 베트남사, 인도네시아사, 태국사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명:

고려대학교 문제는 상당히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배출해낸 학자들이 많았고, 한국 동남아연구의 1세대 중에서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비중이 컸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완전히 동남아를 떠났어요.

최병욱:

그게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청자들에게 의견을 좀 묻고 싶다고 한 것이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실 동남아시아사 연구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김준엽 교수의 선견지명 덕분이고 그 분이 60년대에 이미 학생들을 뽑아가시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그 때 벌써 외국으로 나가 공부를 시켰죠. 그때 말레이시아 하고 인도네시아 연구는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겨서 중단되었고 유인선교수하고 송인서교수가 70년대 말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으면서 동남아역사연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덜커덕하는 바람에 인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계획에 있었던 그 그룹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지금보다 동남아연구 역사학자가 6명 정도 더 많았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오명석:

김영애 선생님이 『동남아시아연구』에 어문학 관련 논문이 지금까지 15년 됐는데 15편 밖에 안 실려서 일 년에 한 편 정도 실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편집위원장도 하고 실제로 동남아학회지에 어문학 관련 논문이 게재가 별로 안 되는 것이 사실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 김영애 선생님이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학회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회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영천(인하대):

저는 문학연구자이지만 동남아 문학전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회지를 한 회 더 발간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동남아학회지에 문학연구논문이 적게 실리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애:

조금 첨언한다면 동남아 어문학 연구는 비교문학, 비교문화, 비교언어 연구들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MS Word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남아언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학회지에 인용되는 문학작품의 중요한 대목을 원문과 함께 실는다면 『동남아시아연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 몫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명석:

베트남 관련지에도 어문학 논문이 한 40편이나 되는데 『동남아시아연구』에 실린 것은 몇 편 안되네요. 연구 성과가 훨씬 많은데 동남아학회지가 아닌 다른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호림:

동남아 어문학 연구가 그동안 『동남아시아연구』에 많이 소개되지 않다 보니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동남아 어문학 연구가 다른 지역 어문학 연구 전체를 볼 때 차지하는 위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이 좀 주장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논문의 통계적인 개요를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는 그런 주장도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문학 연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문학 주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사회화나 인문학 연구에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동남아연구의 학제적 연구에 기여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석: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학회지가 동남아 지역학을 대표하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어문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문학적인 부분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집위원장님께 오늘 나온 얘기는 전달하고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심층적인 논의를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IV. 한국 정치학계 및 경제학계의 동남아연구

1. 정치학 분야 개관

박사명(강원대):

제 발표문의 부제가 “양적 빈곤에서 질적 풍요까지”인데, 이런 부제를 달게 된 이유는 어차피 오늘 각 분야가 모두 연구성과의 양적 빈곤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수의 연구인력 때문에 양적 빈곤이 단기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현실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동남아연구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치학 전공자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것도 아닙니다. 후속 세대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현실을 일단 수용한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한데, 사실 질적 차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적 빈곤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질적 빈곤의 문제는 그 책임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 부문별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이 주로 양적 빈곤 차원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질적 풍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은 무엇인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제가 거기 발표문에 메모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비교정치, 나아가 정치학 전체의 문제이지만, 우리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가치정향(value orientation)의 문제인데, 우리가 왜 동남아정치를 연구하는가에 대한 새삼스런 성찰이 요구됩니다. 가치중립적인 정치학을 추구할 것인가, 가치지향적인 정치학을 추구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는 옳고 어느 하나는 그른 것이 아닙니다.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치지향은 동남아 밖으로부터의 시각 즉 외재적 접근과 관련되고, 가치중립은 동남아 안으로부터의 시각 즉 내재적 접근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재적 접근의 경우에도 동남아 전체의 시각인가, 동남아 각 국가 또는 민족의 시각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의 시각에서 동남아정치에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편향을 배제하자는 것인데, 이상으로서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진정 우리의 이상이어야 하는가?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도 동남아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가치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면 구태여 동남아정치를 연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밖으로부터의 시각에서 동남아정치를 관찰하면 보편적 측면을 부각하게 되고, 서구적 사회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의 시각도 서구적 시각을 닮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국의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한국적 시각에서 동남아정치를 연구할 때 가치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가 일정한 가치지향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paradigm”, “perspective”, “approach” 등 어떤 용어를 구사하든, 구체적 연구방법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역사주의적 접근방법, 근대주의적 접근방법, 탈근대주의(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방법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워낙 혼란스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경향을 얘기하기 힘들어서 발표문에서는 역사주의와 근대주의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창기 동남아정치연구회 시절 처음 출판했던 『동남아 정치와 사회』의 서두에 실린 에머슨(Donald K. Emerson)의 “동남아시아 역사해석의 문제”라는 논문(1-40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주의적 접근은 동남아정치의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므로 내재적 시각에 해당하며, 동남아정치의 주체성, 자율성, 특수성, 계속성 등이 강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주의적 접근은 외재적 시각에 해당하므로 동남아정치의 의존성, 타율성, 보편성, 가변성 등이 부각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현실적 연구관행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른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가 그것입니다. 어떤 학문과도 ‘통섭’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가? 우리 학회나 연구소 자체를 보더라도 그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서로 이 분야 저 분야의 ‘풍월’은 많이 들어서 안목은 제법 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학제적 연구라는 것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각자 전공분야에 대한 글을 써서 책 하나로 편집한 정도일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학제적인가, 차라리 ‘인제적’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을 우리가 사실이 20년 동안 해 왔어요. 진정한 학제적 연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모두 다양한 학문분야의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수준을 지향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인접학문의 성과를 자기 분과학문에 활용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 모인다고 다 학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다루어 온 구체적 연구주제의 문제입니다. 정치학적 연구의 중심적 주제가 식민체제의 해체 초기에는 민족주의, 그 다음엔 국가형성과 그 기초로서의 국민통합이었습니다. 전례 없이 새로운 형태의 주권국가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국가안보, 안보국가 문제가 전면에서 대두하게 되었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개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장속도만 높으면 좋다는 성장주의, 발전국가 문제가 흥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배했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그 이념적 대결의 공백에 민족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의도 있지만 중심은 역시 민족주의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본격적인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정치학적 연구의 새로운 주제들이 부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전환, 국민통합을 넘어서는 지역통합, 국가안보를 넘어서는 인간안보, 경제개발을 넘어서는 인간개발, 가속성장을 넘어서는 지속발전—‘지속 가능한 발전’—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는 심각한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은 거의 대부분이 사례연구(case study)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남아는 10개의 국가,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사례연구만 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지역적 보편성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례연구로부터 우리가 학문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과연 무엇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 여기 존경하는 인류학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꾸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에만 빠지다 보면 연구거리는 무궁무진하겠지만, 이제는 무작정 쓰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 방법론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동남아연구도 ‘밥’ 문제,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옛날보다는 훨씬 완화된 듯하고, 그래서 이제는 지적 차원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문화 연구

정연식(창원대):

정치문화에 관한 논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에 친착하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만큼은 정치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문제는 국내 동남아정치 연구자들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수준에서 동남아의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가 하는 겁니다. 2001년 이후 『동남아시아연구』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동남아 정치문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11권 1(봄)호부터 2007년 17권 2호까지 『동남아시아연구』에는 총 11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그 가운데 동남아정치에 관한 논문은 63편으로 전체 논문의 절반을 넘었고 주제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학자에 의해 작성된 논문은 50편이고 나머지 13편은 인접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생산한 논문입니다. 50편의 정치학자 논문 중에서 정치문화가 연구의 주제인 논문은 아쉽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문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우 또한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대부분의 논문에서 정치문화는 때로는 주요 변인으로, 때로는 여분의 설명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문화가 분석되고 설명되는지 보겠습니다.

정치문화 연구가 쉽지 않은 건 무엇보다도 정치문화가 본질적으로 복합적인 동시에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복합적이라는 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복수의 정치문화가 공존함을 뜻합니다. 예컨대 계급, 세대, 지역 등에 따라 상이한 정치문화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치문화 연구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그 대상의 크기가 확대되면 복수의 정치문화를 적절한 관계 속에 배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패하면 방법론적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지배계급의 정치문화와 충돌하는 혹은 배치되는, 따라서 체제변화의 측면에서 반드시 포착되어야 하는 정치문화가 탈락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둘째, 가변적이라 하는 것은 정치문화 또한 여느 문화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면 정치문화는 독립변수로만 존재하게 되고 결정론적 설명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그 역동성을 추적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체제변화에 선행하는 정치문화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그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사이의 긴장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문화의 복합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간의 동남아 정치문화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성과는 연구 대상이 다양한 계급, 계층, 지역으로 세분화된 데 따른 것으로 과거 지배계급 혹은 엘리트, 중심부, 남성 정치문화 중심에서 피지배계급, 지방 혹은 주변부,

여성 등의 정치문화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비록 지배계급 혹은 엘리트 정치문화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취급되고 있지만 그 또한 공히 분석되어야 하는 정치문화이고 어쩌면 아직은 가장 중요한 정치문화라는 걸 고려하면 후한 점수를 주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복수의 정치문화를 단순 조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분석틀을 유지하면서 매끄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익숙한 정치문화를 동원해 ‘뺨질’식으로 설명함으로써 완벽한 설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 방식이 때로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수준에서도 정치문화는 복합적이며 특정한 하나의 정치문화가 완벽히 지배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정치문화, 특히 모순적인 정치문화가 동시에 작동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혹은 체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혹은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간 국내 동남아정치 연구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변증법적 분석, 즉 모순 관계를 이루는 정치문화간의 대립구조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배적 정치문화, 혹은 상식, 혹은 알튀세르(Louis Althusser) 개념으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혹은 그람시(Antonio Gramsci) 개념으로 헤게모니(hegemony)가 체제 유지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면 그러한 지배적 정치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 또 그에 맞서는 정치문화 혹은 그람시 개념으로 대항헤게모니(counter-hegemony)가 형성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에서 헤게모니와 대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석이 없으면 연구자들은 지배적 정치문화를 상수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는 정치문화의 가변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점입니다. 대개 이러한 지배적 정치문화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마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화도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지배적 정치문화도 예외일 수 없고, 따라서 변화의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정치문화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라는 거죠. 세계화에 따른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문화의 가변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치문화의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치문화의 변화는 특히 정치변동, 체제변화 연구에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체제변화에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최근의 연구 경향, 즉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연구 경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때 폐기되다시피 했던 시민문화를 주요 변인으로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민문화가 과거의 참여형 정치문화와 어떻게 얼마나 다른 건지,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가 낳은 서구중심적, 결정론적 분석에서 얼마나 탈피했는지 등 이러한 연구 경향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다만 시민문화와 체제변화 연구에서 주의해야 할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토대, 즉 민주주의 체제를 지속시키는 힘으로서의 시민문화는 주로 타협, 관용, 신뢰, 합리성, 정치적 효용 등의 가치정향 등이 거론되는데 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적합한 정치문화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가치정향이 동시에 형성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형성되며 민주주의 이행기에 선행하기보다는 이행기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체제 전환을 추동하는 수준의 정치문화가 형성되는 걸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복잡성 속에서 형성되는 가변성에 주목해야 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과거 한류 열풍이 빚어낸 한류 연구 열풍,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정치학자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한류 연구에 뛰어들었는데 주로 한류 소비의 현장을 소개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지요. 물론 그것 또한 의미 없는바 아니고 ‘동아시아공동체’ 형성과 관련해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분모 형성에 대한 탐색은 그 자체로 큰 성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정치 연구자들이 참여한 한류 연구가, 한류가 각국의 정치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건 아쉽습니다. 예컨대 한국 드라마에 녹아있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동남아 각국의 한류 소비자의 정치적 정향 속에 어떻게 수용되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배척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를 연구하는 당위성은 그것이 한국의 정치문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의 일상 속에 집중적으로 침투하는 외부의 정치문화라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정치문화의 가변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독립변수로서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로도 분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치문화를 종속변수로 분석하는 작업은 정치학자들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쉽게 덤벼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호, 텍스트, 이미지가 상징하는 의미를 읽어내고 그 의미가 생산되는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 결과 정치학자들은 대개 인류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의 연구 결과를 독립변수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서구에서 생성된 거대 이론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었던 동남아정치가 동남아의 정치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설명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또 정치문화가 정치에 관한 문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동남아의 정치문화는 국내 동남아정치 연구자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3. 정치변동과 정치경제 연구

박은홍(성공회대):

동남아 정치변동과 정치경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전반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어려운 작업인 만큼 이 부분은 동남아 정치연구를 이끄신 선배 연구자분들께서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저의 역할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는 서기 정도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최근 해외에서의 동남아 정치변동, 동남아 정치경제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변동과 정치경제의 관점에서 동남아를 연구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Contemporary Southeast Asia: Regional Dynamics, National Differences*(2004), *Southeast Asian Responses to Globalization: Restructuring Governance and Deepening Democracy*(2005),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East Asia: Markets, Power and Contestation*(2006) 등이 있습니다. 이 문헌들의 내용을 토대로 동남아의 정치변동, 정치경제 연구동향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ASEAN 4’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시민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체제가 정기적인 선거에 의해 교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사이비 민주주의에서 성숙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도

기득권 엘리트들은 기존의 정치적 관행과 정부-기업관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활적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개혁과 정책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남아 민주화는 안정화되었다기보다는 과도기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변화보다는 형식적 변화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일종의 ‘눈덩이 효과’(snowballing effect)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정치변동을 ‘3 T’, 즉 Transitional, Transformational, Transnational로 집약할 수 있고, 이것이 최근 정치변동과 정치경제에 초점을 맞춘 해외 동남아 정치학의 연구경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동남아 정치변동, 정치경제 연구에서조차 문화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정연식 교수께서 동남아 정치문화 연구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치변동, 정치경제 모두 문화 변수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든 합리적 선택이든 그 자체가 문화구속적 측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민주화 이후에도 동남아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후원주의(clientelism)를 탈각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6월항쟁 20주년 기념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정치리더십이나 정치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글들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버마,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사회운동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아웅 모 조 버마연합민족회의 사무국장은 버마에서 중대국면(critical juncture)에 해당하는 1988년에 민주화운동진영내의 지도력과 협상력의 부재로 ‘민주적 돌파’(democratic breakthrough)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프란시스코 네멘조 전 필리핀 국립대 총장은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소견”이라는 글에서 아로요정권하에서 쿠데타를 시도한 뜨릴라네스 대위의 반 아로요 군사행동을 필리핀의 과두제 민주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필리핀형 차베스 리더십의 맹아로 간주하고 과두제를 재생산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혁파하고 필리핀 정치의 혁신을 꾀하기 위해 ‘진보적’ 사고를 하는 군부엘리트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우회적으로 폈습니다. 그의 주장은 엘리트 중심의 이행론(transitology)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필리핀 사회에서 대표적인 진보인사로 지목되고 있는 네멘조 전 총장의 이러한 발상에 참석한 한국 지식인들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미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민주화 이행론과 관련해서 민주화의 요인(cause)보다는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던 행위자(causer)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를 촉진하거나 혹은 지연, 퇴보시키는 요인과 관련해서 엘리트의 역할과 판단이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동남아 정치연구에서는 과두 정치엘리트들의 정치행태와 관련해서 godfathers, bigman, cacique, bossism 등과 가산제(patrimonialism), 후원-수혜주의(patron-clientelism) 등과 같은 개념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최근 박사명 교수 외 여러 동남아정치학자들이 『위기극복의 정치 리더십: 동남아 4개국 정치지도자 비교연구』(2007)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민주화 이행기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4개국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비교한 연구 성과물입니다. 상당히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인상적이고요, 이러한 문헌들은 현재 정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는 한국 정치학계의 한 흐름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리더십 중심의 정치변동론의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의 의지(virtu) 말고도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fortuna) 역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위기극복의 정치 리더십』의

총론에서 박사명 교수는 이를 자원론(voluntarism)과 결정론(determinism)에 대한 균형적 접근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길게는 지난 20년, 짧게는 지난 10년 사이에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혹은 불균등하게 전환을 시작한 동남아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공간이 확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후원주의(clientelism)를 특징으로 하는 동남아 정치가 ‘규칙에 기반한’(rule-based) 정치체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적이 보장되는 정치시장으로 이행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T 중의 하나였던 transformational이 말하고 있는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한국동남아연구소와 서강대동아연구소가 발간한 일련의 동남아연구 시리즈물은 정치변동과 정치경제를 전공으로 하는 한국의 동남아 정치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집단 연구의 성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관된 이론적 관점 혹은 분석틀을 토대로 사례별 ‘두터운 묘사’(thick description)에 성공하였느냐, 이 점과 관련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연구의 성과는 ‘제3의 물결’(Third Wave)이라고 칭하는 범세계적 수준의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전복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외압 속에서 더 이상 ‘아시아 예외주의’(Asian exceptionalism)가 고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global-local nexus’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테스트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연구 성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 정치학계의 동남아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같은 맥락에서 동아시아 범주에 동남아가 적극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통화위기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한국에까지 전염(contagion)되는 양상이 보여지면서 한국 정치학계도 정치경제론의 시각에서 동남아에 주목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일종의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비교정치론적 관심의 표현일 것입니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의 동남아 정치변화의 방향은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위기가 정치개혁, 민주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동남아를 들여다보면 필리핀도,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안정된 민주화가 아닌 상당히 불안정한 민주화의 여정을 밟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동남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global-local nexus’의 최악의 산물인 통화위기의 진원지가 된 지 10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의 혼돈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로써 초기에 지구화에 대해서 대결적 자세를 취하였던 포퓰리즘으로서의 탁시노크라시(Thaksinocracy)의 부상과 퇴장, 그리고 태국 근대 정치사 이래 최초로 시민사회의 지지까지 받은 반(反) 탁신 군부쿠데타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부각되었습니다. ‘동남아 경제위기의 정치적 맥락’에 뒤이어 ‘동남아 정치위기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주된 학문적 의제로 삼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인류의 진보를 보다 많은 민주주의와 보다 많은 물질적 풍요로 표현한다면, 한국과 동남아 역시 이 목표를 향한 여정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치학계가 동남아 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에서든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국내 동남아 정치학자들은 이런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동남아를 소통시킬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조직적 자원을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이 수요를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4년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의 한 분과로 조직된 [아시아정치학포럼](6.24-25)은 국내 동남아 정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정치학과 동남아 정치학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장을 꾸준히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한국 정치학과 내에서도 동남아 정치에 대한 지적 관심과 연구가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4. 국제관계 연구

배금찬(외교안보연구원):

제가 처음 이 발표를 의뢰 받았을 때 언뜻 든 생각이 이런걸 뭐 꼭 써야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것이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동남아 국제관계라는 분야를 전업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기에 심각한 성찰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굳이 넓게 본다면 몇 분 될 것 같고 좁게 생각하면 한두 명 정도 밖에 없을 것 같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발표문에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 황무지에 핀 한 송이 작은 꽃”이라고 다소 유치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 이것을 논문이라기보다는 냇두리에 가까운 가벼운 수필형식으로 썼습니다.

지난 15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동남아 국제관계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를 회고하고 성찰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이 분야를 천착했던 극소수의 연구자들이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마저 느낄 정도인 것이 문제일 뿐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1990년대 이후 동남아 정치를 전공한 학자 중 이 지역의 국제관계를 자신의 주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는 학자는 그저 몇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국내외에서 동남아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10명 중 1명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따라서 그 연구 결과도 양적, 질적으로 보잘 것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동남아 국제관계 연구는 거의 황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이 지역에 전략적 관심을 갖고 오랜 연구 전통을 이어온 일본, 호주, 미국 그리고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한국의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점검해보는 작업은 미래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적지 아니 유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동남아 국제관계를 접했던 학자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일반 국제정치를 전공한 학자들이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관변학자들과 주로 국제회의를 통해 교류했던 그룹입니다. 대표적으로 CSCAP(Council on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이나 Asia-Pacific Round Table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그런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들을 동남아 국제관계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이들은 국제회의에서 주로 동북아 국제정세 또는 한반도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로 안전, 테러, 해적, 마약, 밀수, 환경 파괴 등 동남아를 포함하는 아태지역의 비전통적 다자안보 이슈들을 한국의 입장에서 개선하는 수준의 활동을 했을 뿐이니까요. 또한 이들이 동남아 국제관계의 주요 주제를 다룬 어떠한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 낸 적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동남아 국제관계 연구자로 간주하지도 않는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이들은 동남아국가들의 국제정치 학자들과 일반적인 국제관계 이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남아 국제관계의 단면을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국내대학과 연구소에서 동남아 국제관계에 대해 전문적 연구를 계속해온 학자들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전업 연구자들이 수적으로 극소수라는 데 있으며, 이들의 주요 연구주제가 거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구수준도 그다지 높지 못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몇몇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ASEAN에 관한 저술도 나왔고, 국가기관 연구소의 연구자에 의해 ASEAN과 동남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일본, 호주 등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ASEAN을 소개하고 최근의 변화 추세를 짚어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ASEAN에 대한 연구가 동남아 국제관계 연구의 핵심주제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겠지만, 예컨대 동남아 각국의 외교정책이라든지 동남아 역내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관계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역외 강대국들과 동남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한-ASEAN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동남아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는 자명합니다. 일차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수요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는 동남아 국제관계 전공자를 시급하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 국제관계를 전공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동남아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월남전 종식 이래 동남아 지역의 국제관계 변화가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만큼 가시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대국 중심의 사고에 익숙한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에게 중소국가들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국제관계는 언제나 일차적 관심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더욱이 국내에서는 연구자들이 동남아 국제관계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관찰, 분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요 강대국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국제관계를 분석해야 하는 외교안보연구원 정도만이 예외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덕에 제가 이 분야를 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있을 리 없고, 관심이 없는 분야에 사람이 몰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무지나 다름없는 국내의 동남아 국제관계 연구 분야에서 ‘한 송이의 작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위 ‘동아시아공동체’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7년에 출범한 ASEAN+3 정상회의와 더불어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개최로 촉발된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은

다수 국내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끌기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과정에서 동남아 국제관계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을 ASEAN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비전과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도 하나의 배경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국제관계와 동북아와 동남아간 정치, 경제적 연계 관계는 보다 많은 국내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통합 문제에 대한 연구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ASEAN+3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연구 사업들, 예컨대 NEAT(Network of East Asia Think-Tanks), EAF(East Asia Forum), 동아시아 지역연구사업 등은 국내학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부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심 있는 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등을 측면에서 지원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동남아 국제관계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동남아 국제관계 연구 분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많은 수의 학자들이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을 통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전문 연구자들의 숫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연구 성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지적 호기심이나 관심만 가지고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없으며, 전문가란 단시일 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쟁은 향후 한국의 동남아 국제관계 연구를 촉진하고, 새로운 연구 인력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남아 국제관계와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관련한 주제들을 가지고 석·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예비 전문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남아 국제관계에 새롭게 관심을 가진 국내 학자들도 학생들에게 이 분야의 중요성을 계속 주시시켜나간다면, 이들 중에서 차세대 전문가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과 ASEAN과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적 협력과 교류가 더욱 더 심화된다면, 일반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동남아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인력을 보다 많이 필요로 할 것이며, 많은 후학들이 이 분야를 천착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5. 경제학 분야

박변순(삼성경제연구원):

모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이후에 경제가 모든 걸 지배한다고 주장되는데 오늘 발표 순서를 보니 경제학 분야는 맨 마지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할 기회를 갖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 좀

불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발표순서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불평을 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고 한국경제학과 동남아 연구의 과거를 회고하라고 해서 주류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의 동남아 연구의 실상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즉 우리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의 동남아 경제 연구가 아닌 주류 분야에서 동남아 경제가 어떻게 취급이 되어왔는가를 한번 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에 한국 경제 경영학계의 기관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 기관지가 『경제학 연구』인데 여기에는 동남아 경제 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대신 2005년에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회의에서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고찰이라고 안평수 선생의 논문이 한 편 있는데 이것도 순수하게 동남아 경제 연구라고 하기는 좀 뭉힙니다. 경제학 쪽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의 학회지를 좀 들여다봤는데 『국제경제연구』에도 관련 논문이 한 편이 없고 1998년 경제학술발표논문집에 고려대학 박인원 선생이 “AFTA, Is it Sufficient for ASEAN'S Further Economic Growth?” 라는 논문을 한 편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학회 기관지가 『국제 통상 연구』인데 1999년에 “한-ASEAN간 무역 및 직접투자 관계분석”이라고 원용걸 교수가 한 편 발표를 했습니다. 원교수가 이 시기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재직한 것이며 이것도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정식 논문으로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크게 의의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 2003년에 “중업원 조직몰입의 국제비교 1997-2002: 인도네시아, 중국 및 한국을 중심으로” 등 몇 편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국 무역학회 기관지 『무역학회지』는 1997년에 고려대학교 이장로 선생이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사례연구” 라는 케이스 스터디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상은 경제학 쪽이고 경영학계를 보면 경영학회 기관지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두 개인데 『경영교육연구』라는 기관지가 하나 있고 여기에서는 한국기업의 동남아 현지화 관련해서 논문이 몇 편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완전 순수하게 동남아를 주제로 한 연구가 『경영학연구』에 200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정구현 선생이하 몇 명이 쓴 논문으로 “동남아 화인기업과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인데 완전히 동남아를 주제로 해서 쓴 유일한 논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남아 경제 관련 연구가 이렇게 빈약한데 비해 한국경제학회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지역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1990년에 제4차 국제학술회의에서 중국 경제를 특집으로 다뤘고 1992년 제5차 국제학술대회에서도 중국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경영학계에서도 우리기업의 직접투자와 관련해서 중국을 아주 인기가 좋은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순수 메인 스트림에서 동남아 경제가 이렇게 박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정책연구는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구소로 지금은 지역연구 기능을 안 합니다만 산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1970년대 말에 중동문제연구소에서 시작해서 국제경제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또 산업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사실 한국의 세계지역경제 연구를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대 서울대학교 출신의 조순선생께서 그때 재경장관인가 경제기획원장관인가를 하시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지역경제 연구기능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다 갖다 주었기 때문에 이내 지역연구가 산업연구원에서 완전히 사장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아주 좋은 인력들이 육성이

되어 있었습시다만 그 사람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계속 산업연구원에 있으면서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운 일이지요.

그다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있습니다. 노태우정부 시절에 공산권경제를 연구했던 연구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통합시켜 지역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도 여러 분들이 좋은 정책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연구라는 게 폴리시메이킹(policy-making)에 뭔가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만 이러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저작이 순수하게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고 한국이 동남아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입니다. 동남아학회지에서 동남아 경제 관련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연구 층이 두텁지 못하고 실증분석이나 깊이 있는 동남아 경제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남아 지역 경제연구가 부재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0년대 후반에 동남아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동남아 연구가 많이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의 경제학자나 경영학계에서는 동남아 연구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요인이랄까, 배경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 먼저 한국경제학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경제학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신고전파경제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박현채 선생이나 주종환 선생 같은 분들이 한국적 경제학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고 일부 계층에서는 그게 꽤 어필을 합니다. 그러나 어필을 하되 한국사회의 일부 비주류에서는 어필을 하는데 주류부분 특히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런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데서 졸업한 분들에게는 전혀 어필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는 시장의 수요공급에서부터 경제학 교육을 시작합니다. 또한 이 수요공급은 세계 어느 지역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문제가 지역을 다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동남아 내에 있는 경제학자들 또한 우리 못지않게 서구의 경제학 도구를 가지고 동남아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경제가 특수하게 존재하지 않는 한 그쪽도 안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동남아경제를 다르게 다룰 이유는 없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학의 특성이나 배경이 이러니까 동남아 경제를 가르칠 교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김영삼 정권 때 여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지역종합연구소로 처음 시작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지역종합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개도권의 지역연구를 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를 추진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 주도의 국제대학원 지원 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이 다 국제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국제대학원 계획을 주도적으로 짰던 분이 서울대의 모경제학 교수라고 하고 우리가 듣기론 그 분이 국제대학 포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더러 그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 받고 와서 노는 제자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을 심어줄려고 이런 식으로 국제대학원 체계를 만들었다고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의 116쪽에 “정부지원을 받은 국제대학원의 전공과정”을 보시면 국제대학원의 커리큘럼이 일반대학원 커리큘럼하고 똑같고 지역이란 개념을 거의 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지역경제를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와서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지 않고 원래 미국에서 배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수들 연구, 공부 잘 안하지 않습니까? 동남아학회 분들만 빼놓고. 그래서 미국에서 배운 거 다시 그걸 우려먹고 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동남아경제가 사실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동남아경제라는 게 우리가 동남아를 보통 10개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경제학에서는 이 10개국에 단일하게 관류하는 하나의 특성을 만들어 내야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발 몇 개국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델이나 동아시아 모델이라 해서 관류하는 특성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만 저개발국인 인도차이나 지역을 포함해서 관류하는 어떤 것을 발견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 연구가 사실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학 연구가 대체로 실증분석을 요구하는데 국내에서 동남아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나 통계자료를 얻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매년 연말 가을철이 되면 내년도 동남아 경제 전망 작업을 합니다만 전망 작업은 데이터를 모아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 경제전망을 하는데 그러면 통계도 잘 정비되어있지 않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동남아 중에서 6개국을 대상으로 작업을 합니다만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자료가 있다 해도 인터넷도 느리고 통계를 얻는다고 해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등의 통계가 또 엉터리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EU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나라라고 연구원이 2~3명 있습니다. 동남아는 안중요하니까 한 명! 그런데 거기서 한나라이고 통계 정비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EU하면 EU중앙은행이나 이런데서 통계가 아주 잘 정비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섯 나라를 조사하는데 12시간 걸린다면 그 사람들은 두 명이 한나라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0.5시간 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동남아를 연구하는데 다른 지역 연구보다 훨씬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니 누가 동남아를 연구하겠습니까?

아까 배극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요의 부족문제가 사실 엄청나게 동남아 경제 연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환위기가 왔던 1990년대 말에 후대가 동남아 경제를 보기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작정을 하고 정말로 온갖 정열을 쏟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제목이 『동남아 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온 정성을 다해서 500페이지 정도 책을 만들었는데 몇 년 지나고 우리 출판부에 물어보니까 한 600권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책 같은 책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더 쓰지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애착을 갖고 있던 책이 고작 한 600권 팔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안 되겠다 싶어서 동남아는 빼고 동아시아 이렇게 하자하고 그 뒤로 동아시아에 관한 책을 두 권 냈습니다만 물어보니 한 2,000부씩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말에 얇은 책을 또 하나 출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아예 동아시아도 빼고 중국과 인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미있으라고 한 소리입니다만 사회적 수요의 크고 작음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남아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첫 번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만 커리큘럼자체가 학부에서 없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동남아 경제론이 개설되어 있는가를 한번 쪽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경제학 커리큘럼에는 동남아 경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경제학과에는 [중국경제론], [일본경제론]이 있고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경제통합론]은 있으나 [동남아경제론]은 없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산대 경제학과 같은 곳에서는 [중국경제사연구], [일본경제사연구]가 개설되어있는데, 당대의 중국이나 일본경제학도 아니고 아닌 이런 경제사 연구가 들어있는걸 보고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동남아경제 과목이 개설된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에서 [동남아경제론]이 있고 상명대에서 [동남아경제론] 과목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제가 다 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에서 이 과목을 개설한 교수님들을 아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강좌가 개설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개설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남아경제가 실제로 인기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인기가 없느냐? 전혀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아시아지역연구론(중국 제외)]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고 제가 그 과목을 5년간 가르쳤습니다. [중국지역연구론]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한국기업이 나가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 하므로 결국 [아시아지역연구론(중국제외)]은 강사가 하기 나뉘고 결국 제가 동남아경제론을 가르쳤는데 학생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125명이 수강한 경우도 있고 수강인원을 제한해도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의 하나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동남아경제론이라는 강의가 재미가 없지 않은 아주 좋은 과목일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의 학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나 통상학과 이런데서 [동남아경제론]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민간부문에서 일을 해본 경험에서 보면, 지역경제 연구에 있어서는 다른 전공보다도 학부에서부터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쪽에서 동남아 경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노출을 시켜준다면 그것이 앞으로 동남아경제를 전공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을 불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 토론

조흥국:

부산대학교에 [동남아경제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박변순 선생님이 조사할 때 발견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박변순:

아, 그랬군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한국외대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의 동남아관련 어문학계열에서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동남아경제론]을 개설한다면 제가 공짜로라도 가서 가르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요청이 없는 것 같아요.

최병욱: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유별난 것이지요?

박변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나희량 박사한테 점심시간에 잠깐 물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거기서도 동남아 경제를 관류하는 어떤 특성을 발견해내기가 어려우니까 [동남아경제론]을 개설하는 게 쉽지는 않죠. 강의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도 중국경제나 일본경제에 관한 강좌보다는 동남아 경제를 쉽게 찾아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남아 현지에 가면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 대학 같은 데는 많이 가르치죠. 일본도 많이 가르칩니다. 동남아 경제를 하는 일본사람들이 많지요.

박사명:

미국에서 동남아 경제학을 전공하고 오신 분이 있다는데 어디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듣다보니까 굉장히 귀한 분이네요. 자기소개라도 해주시죠.

나희량(포스코경영연구소):

안녕하세요? 나희량입니다. 하와이 대학교에서 5년간 공부하고, 올해 6월에 돌아왔습니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제가 다행히 동남아 쪽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박변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앞으로 더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사명:

‘국보급’ 학자가 등장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전제성:

호주의 경제학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아시아의 비공식 경제에 관해 연구한 분의 발표를 들으니까 경제학자인데도 인류학자처럼 현지조사를 가서 인터뷰와 현장관찰을 하여 얻은 자료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개량경제학 쪽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홍:

저는 박변순 선생님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제가 교토대학의 동남아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코수케 미주노(Kosuke Mizuno) 소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인도네시아 농촌경제를 연구하였고, 또 아끼라 수에히로(Akira Suehiro) 같은 학자도 태국을 연구한 경제학자이고, 동남아 내에도 말레이시아의 조모(Jomo)나 테렌스 고메즈(Terence Gomez)라든가, 태국의 파숙 풍빠이짓(Pasuk Phongpaichit)이라든가 이런 걸출한 경제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학계도 지역연구 차원에서 동남아에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번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끼라 수에히로의 화인자본 연구를 보고 동남아 지역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대동아공영권 이후에 교토대학이라든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경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끼라 수에히로의 태국 화인자본 연구 같은 경우는 태국의 사회학자나 경제학자가 참고할 정도로 고전이 되었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아지깡(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에 핫도리상 같은 사람의 연구가 한국 사람들이 조선 시대의 경제를 연구하는 기반이 될 정도로 일본은 아시아지역연구의 뿌리가 깊지요. 저는 한국 상황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남아 경제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명: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양적 빈곤과 질적 풍요의 문제의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이 몇 배로 짐작하셨을 겁니다. 객관적 수요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배궁찬 교수님이나 박번순 박사님의 지적처럼 주체적 대응에 따라서 강좌가 몇 개씩 늘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 조건을 단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주체적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원된 수많은 언어 중에 가장 멋진 미사여구, “황무지에 핀 한 송이 작은 꽃”,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꽃이 무슨 꽃이냐? 만약 이 꽃이 화려한 꽃이면 빨리 죽어버립니다. 이 꽃이 장미꽃이라면 꽃만 짓밟아버리면 그 장미의 생명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만약 민들레다, 그렇다면 밟을수록 멀리 퍼진다. 한국의 동남아학은 민들레와도 같은 것이다! 화려함은 없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재확인하면서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